

기아, 하이브리드·전기차 앞세워 북미 시장 정조준

‘2026 뉴욕 국제 오토쇼’ 참가
신형 셀토스·EV3 최일선 배치
교통약자 특화 PV5 WAV 공개

기아가 고유가 시대를 맞아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를 앞세워 주요 수출시장인 북미 시장 공략에 나섰다.

기아는 최근 미국 뉴욕 제이콥 재비츠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26 뉴욕 국제 오토쇼(이하 뉴욕 오토쇼)’에 참가했다.

기아는 이번 뉴욕 오토쇼에서 북미 SUV 시장의 판도를 바꿀 ‘디올 뉴 셀토스’와 전기차 대중화를 주도할 ‘더 기아 EV3’를 북미 최초로 공개하며 현지 시장 점유율 확대와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미래지향적 세련미가 돋보이는 정통 SUV, 신형 셀토스 북미 최초 공개

북미 시장에 새롭게 출시될 셀토스는 기아 글로벌 SUV 라인업의 핵심 차량으로, 1세대 모델의 세련된 디자인·실용적 상품성 등을 계승하는 동시에 다양한 첨단 사양과 한층 강화된 공간 활용성을 갖춰 북미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모빌리티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가솔린 모델뿐만 아니라 북미 시장 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도 함께 출시해 경제성과 친환경 가치를 모두 추구하는 고객들에게 최적의 선택지가 될 전망이다.



2026 뉴욕 국제 오토쇼 현장에 전시된 셀토스 EX.

(기아 제공)

이번에 새롭게 선보일 셀토스 하이브리드 모델은 1.6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바탕으로 우수한 연비 성능을 갖추고, 고객에게 전기차에 가까운 전동화 주행 경험을 제공한다.

가솔린 모델은 1.6 터보 가솔린 모델과 2.0 가솔린 엔진 모델로 운영된다.

◇전기차 대중화 선도할 전용 콤팩트 SUV 전기차, EV3 북미 최초 공개

셀토스와 함께 올해 북미 시장에 출시될 EV3

는 기아가 현지 출시한 전기차 라인업 중 접근성이 가장 높으면서도 고객 선호도가 높은 첨단 사양을 합리적으로 제공하는 전용 콤팩트 SUV 전기차로, 북미 모빌리티 시장의 전동화 전환을 촉진하고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을 혁신할 것으로 기대된다.

EV3의 내외관은 기아 고유의 디자인 철학 오피트 유나이티드에 기반해 세련되고 기하학적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고,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

팅과 수직으로 배치된 스몰 큐브 LED 프로젝트 헤드램프가 ‘타이거 페이스’를 형상화하며 대담함과 미래지향적 느낌을 전달한다.

내부에는 파노라마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돼 운전자에게 시각적 통일감을 주고, 2열 리클라이닝 시트 탑재로 탑승객의 이동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미국 시장 전용으로 선보이는 ‘나이트폴 에디션’은 외관 전반에 블랙 티데일 및 엠블럼을

적용하고 실내는 다크 그레이 인테리어로 마무리해 더욱 진중하고 세련된 스타일을 자랑한다.

EV3는 다양한 첨단 안전 사양과 주행 보조 기능이 장착돼 고객의 편안하고 안전한 이동을 돕는다.

기아는 EV3를 라이트(Light), 윈드(Wind), 랜드(Land), GT-라인(GT-Line), GT 등 총 5가지 트림으로 2026년 하반기 미국 시장에 출시할 예정이다.

◇교통약자 이동 혁신 위한 뉴욕 택시 콘셉트 PV5 WAV

기아는 이번 뉴욕 오토쇼에서 북미 모빌리티 전문 기업 브라운어빌리티와 협력해 제작한 휠체어 탑승 승객 이동 특화 차량인 ‘PV5 WAV’ 콘셉트카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PV5 WAV 콘셉트카는 기아가 PBV(Platform Beyond Vehicle) 사업의 글로벌 컨버전 파트너사 중 WAV(Wheelchair Accessible Vehicle) 개조를 전문으로 하는 브라운어빌리티와 함께 뉴욕 택시 콘셉트로 제작한 전기차 기반 WAV 차량으로, 미래 모빌리티 사업의 핵심 가치인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속 가능성과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설계됐다.

특히 고객의 목적과 용도에 맞는 특화 모델을 개발·제작하는데 용이한 기아 PBV 플랫폼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PV5 차량 개조 범위를 축소해 차량 품질을 극대화했으며, E-GMP(S 전용 플랫폼 기반)의 저상화 설계로 휠체어 탑승 승객과 운전자 모두 편리하게 승·하차할 수 있다. /임채만 기자

현대차 아이오닉 6N ‘세계 올해의 고성능차’ 수상

전기차 전용 플랫폼 경쟁력 입증

현대차그룹은 최근 ‘뉴욕 국제 오토쇼(New York International Auto Show)’에서 진행된 ‘2026 월드카 어워즈(2026 World Car Awards)’에서 현대차 아이오닉 6N이 ‘세계 올해의 고성능 자동차(World Performance Car)’를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현대차 고성능 세단 EV 아이오닉 6N은 BMW M2 CS, 쉐보레 콜벡 E-Ray를 제치며 세계 올해의 고성능 자동차에 선정됐다.

현대차는 지난 월드카 어워즈에서 2023년 아이오닉 6가 세계 올해의 차에, 2024년 아이오닉 5N이 세계 올해의 고성능 자동차에 선정된 데 이어 이번 아이오닉 6N이 고성능 부문 상을 받으며, 현대차그룹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Electric-Global Modular Platform)에 기반한 전용 EV 및 고성능 EV의 뛰어난 상품 경쟁력



을 또 한 번 입증했다.

아이오닉 6N은 강력한 동력성능, 고속 주행 안정성과 일상 주행의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한 차체, 짜릿한 주행감성을 전달하는 N 고성능 전동화 사양을 갖췄다.

아이오닉 6N은 합산 최고 출력 448kW(609마력), 최대 토크 740Nm(755kgf·m)를 발휘하는 전·후륜 모터가 탑재됐으며, 일정 시간 동안 최대 가속성능을 발휘하는 ‘N 그린 부스트’ 사용 시 합산 최고 출력 478kW(650마력), 최대 토크 770Nm(7

85kgf·m)로 더욱 강력한 성능을 뽐내는다.

또한, 현대차는 아이오닉 6N에 차세대 서스펜션 지오메트리와 스트로크 감응형 전자제어 서스펜션(ECS) 댐퍼, 전륜 ‘하이드로 G부싱’ 및 후륜 ‘듀얼 레이어 부싱’과 함께 ▲N e-슈프트 및 N 램버전트 슈프트 라이트 ▲N 액티브 사운드 플러스 ▲N 드리프트 옵티마이저 ▲N 트랙 매니저 ▲N 레이스 캠 등 한 단계 진화한 고성능 전동화 사양을 아이오닉 6N에 대거 적용해 고객에게 즐겁고 짜릿한 주행감성을 제공한다.

아이오닉 6N은 같은 날 영국의 저명한 자동차 전문지 탑기어가 주관하는 ‘2026 탑기어 전기차 어워즈’에서 ‘운전자 위한 최고의 차’에 뽑혔으며 이보다 앞선 올해 1월 영국 대표 자동차 전문 매체 왓카의 ‘2026 왓카 어워즈’에서 ‘최고의 고성능 전기차’에 선정되는 등 우수한 상품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임채만 기자

금호타이어-KIA 타이거즈 ‘파트너십’ 연장

2028시즌까지 3년간 동행

금호타이어는 6일 “지난 3일 KIA 타이거즈 홈구장인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공식 파트너십 연장 조인식을 개최하고, 2028시즌까지 3년간 동행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조인식에는 금호타이어 G.마케팅담당 윤민석 상무와 KIA 타이거즈 심재학 단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KIA 타이거즈는 최다 KBO 한국시리즈 우승 팀으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국내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최고 명문 구단이다.

KIA 타이거즈 선수들은 올해 정규시즌 모든 경기에서 상의 우측 흉장에 금호타이어 로고가 부착된 유니폼을 입고 출전하게 된다.

또한 KIA 타이거즈 홈(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및 원정 14개 경기를 비롯해 구단 홈페이지 및 유튜브, 입장권, 팬북 등 다양한 경로로 관중들을 만날 계획이다.



금호타이어는 국내외 다양한 스포츠 대회 및 구단 후원을 통해 기술력과 브랜드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특히 2022년, 4년 만에 KIA 타이거즈와 공식 파트너 계약을 체결하며 KIA 타이거즈의 투터운 팬층과 높은 관심도를 기반으로 브랜드 노출 효과를 극대화해왔다.

이번 파트너십 연장을 통해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임채만 기자

광주 안의 유일한

친환경 수목장

☑ 아름다운 자연

☑ 365일 관리

☑ 가족구성 가능

☑ 사용기한 없음

☑ 전문 이장

☑ 광주시청 20분

수목장 · 묘지 이장 · 장례

상담: 062-449-4446